



꽃이 많이 달리고 꽃대가 곧아 꽃꽂이용으로도 적합하다.

화단 및 절화용 미역취 재배기술

미역취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Potted Plant of *Solidago virga-aurea* var. *asiatica* Native to Korea.

송정섭 | 이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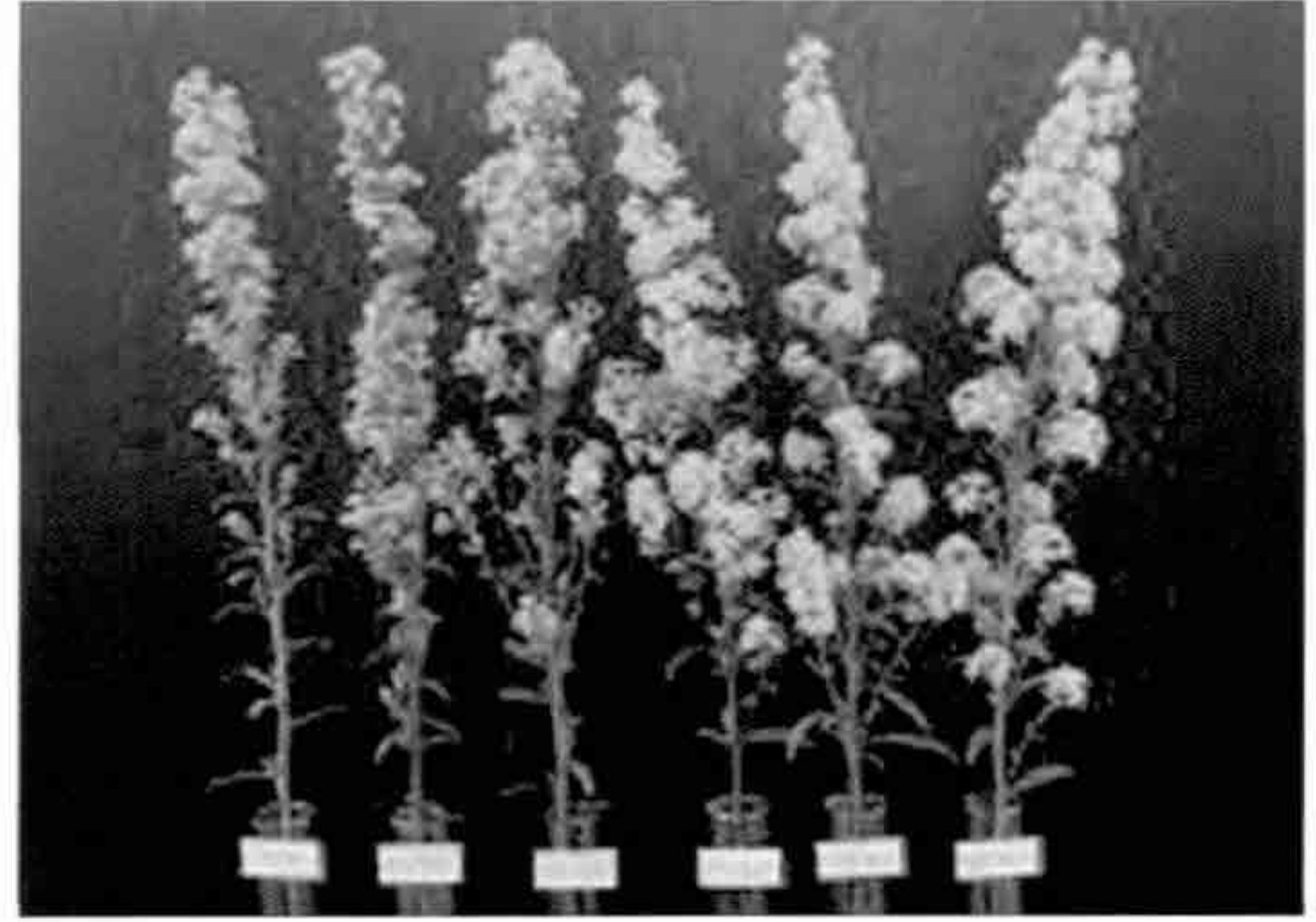
T.031-290-6140,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장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한 여름에 미역취만큼 노란 꽃다발이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야생화도 흔치 않다. 특히 미국미역취는 꽃차례에 많은 꽃들이 달리고 줄기가 곧아 화단용은 물론 꽃꽂이용으로도 아주 훌륭한 소재이다. 여름에 피며 진한 노랑색이라 더워 보이긴 하지만 균락을 이루며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장관이며 강렬한 느낌도 든다.

1. 생태적 특성

미역취는 산과 들에 해가 충분히 드는 곳에서 자란다. 뿌리에서 나오는 잎은 꽃대가 나오면서 없어지고 꽃대에서 나오는 길쭉한 잎들이 나온다. 흔히 돼지나물이라고도 한다. 유사한 것으로 울릉도에 나는 울릉미역취, 미국에서 건너와 이제 귀화식물이 된 미국미역취가 있다. 관상용으로는 미국미역취가 우수하다. 7월에 노란 꽃이 원추형으로 달려 핀다. 화단용으로는 교목의 하부식재용, 초본분재, 지피용 소재로 이용할 수 있다. 미역취는 4월경 어린 순을 식용으로 이용한다. 남부지방 농가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기도 하며 건조품 뿐 아니라 김치로도 가공하여 이용한다.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미역취를 꽃꽂이용으로 개발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 꽃대는 꽃이 약 20% 정도 폼을 때 자르는 것이 수명도 길고 나머지 꽃봉오리들이 나중에 꽃으로 제대로 핀다고 하였다



꽃대를 자른 시기별로 꽃 피는 특성으로 관찰하고 있다.

화단이나 공원같은 곳에서 모아심어 두면 군락을 이루게 되어 지피용으로 우수하다.



2. 재배기술

가. 기를 곳의 환경

어디서나 잘 자라는 편이지만 물이 잘 빠지는 모래참흙이 좋다. 너무 척박하거나 물 빠짐이 나쁘면 자람 세가 불량하여 죽는 개체들이 많다. 한여름에는 약간 해가림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추위에는 매우 강하지만 더위에는 약한 편이며 충분한 광선을 좋아한다.

나. 번식

씨앗뿌리기나 포기 나누기 모두 가능하다. 씨앗은 가을에 따서 11월에 뿌린다. 봄에 뿌리려면 2~4℃에서 20일정도 저온처리가 필요하다. 포기나누기는 2년 이상된 모주를 쪼개서 심으면 된다. 포기나누기를 하면 단기간 내에 충분한 꽃을 볼 수 있다.



화단에 심겨져 있는 미국미역취, 꽃이 한창 피고 있다.

다. 씨앗뿌리기 및 아주 심기

충실한 씨앗을 골라 냉장고(2℃ 정도)에서 10일정도 두었다가 꺼내 뿌린다. 가온이 되는 육묘온실에서 육묘상자에 뿌려 싹이 나오면 육묘포트나 플러그판에 가식하여 기른다. 뿌린지 45일 정도 자라면 아주 심기를 할 수 있다. 절화 생산을 위해 대량으로 재배하는 경우 옮겨심기 하면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씨앗을 직파할 수도 있다.

라. 재배관리

미역취는 워낙 강건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심은 뒤 초기에 새 뿌리가 충분히 내릴 때까지 물 관리를 잘 해준다. 제초작업은 묘판이나 육묘기 때 손으로 뽑아주는 것이 안전하다. 다음 해부터는 신초가 나오기 전에 미리 제초제를 뿌려주면 좋다.

가을에 낙엽이 진후 깊이나 낙엽으로 두텁게 덮어주면 잡초 발생이 현저히 줄어든다.

마. 병충해 방제

진딧물, 순나방, 풍뎅이, 거세미 등의 피해가 약간 생기지만 그대로 두어도 시간이 지나 고온기가 되면 자연히 소멸된다. 하지만 물 빠짐이 나쁘면 뿌리썩음병이 생기므로 특히 장마철에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